



産業近代化와 工業所有權問題

— 韓國生産工學會長 周 利 會 —

— 內 容 —

- 一. 中進國家群의 發展相
- 二. 우리나라 特許行政의 實情
- 三. 特許戰爭時代에 即面하여서

- 四. 特許助成에 政策의 支援 있어야한다
- 五. 決 語

一. 中進國家群의 發展相

二次大戰以後 20年 그동안 歐美先進國들의 發展相은 勿論이고 落後했던 中進國家群의 技術의 努力과 産業의 變遷相은 實로 世紀的 躍進이라 하리만치 急激한 變遷이 되고 있다. 그들 後進國들은 國內技術의 發展革新의 努力은 勿論이고 先進各國에서 嶄新한 施設과 技術을 導入해야 一貫性있는 自動化 體裁로 樣相을 바꾸어 品質의 質的向上으로 國際的信用度를 保障받게 되고 또 一便 技術情報과 通信의 電擊化로 研究發展을 促進시켜 商品의 優良化, 獨占化를 期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國家的施策도 全的保護를 하고있는 實情이다. 이제 美國의 例로서 그나라 年間 特許出願件數는 17萬件을 上廻하고 있다. 戰敗國이던 日本의 特許出願件數는 19萬件으로 世界 第二位를 다투고 있으며 그들의 輸出額은 年間 200億弗線을 보이고 있는 可驚한 實上을 보게된다. 이들 國家群들의 口號는 大小없이 技術革新, 아이디어開

發·努力改善이란 流行語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後進國이던 各國들도 先進國의 그 制度와 努力을 본받아 實로 括目할 程度의 革新相을 보이고 있는 事實을 들어 우리들과 比較하여보겠다.

二. 우리나라 特許行政의 實情

우리나라 特許行政은 創設된지 不過 20年이 되지만 其間에는 政府의 緊縮 豫算關係로서 廢鎖까지 當하는 處地에서 最近 數年間에 時代의 欲求에 따라 相當한 規模의 態勢를 갖추고 政府가 實踐하고 있는 産業開發計劃에 發 맞추어 새로운 努力圈에 들어가고 있는 實情이나 아직 特許行政의 眞正한 施策에는 요원 할 뿐이다. 技術的 後進性을 免치 못하는 우리의 現實과 生産體等의 創意開發과 技術向上에서 特許取得의 努力은 全然表現할 길도 없는 現實에다 發明特許와 實用新案의 出願件數를 보자.

年間 發明願 1,177件, 實用新案出願 3,594件, 이것도 査定되어 特許登錄되는 件數는 特許 428件, 實用 819件에 不過하고 또 그後 이를 實用

特許出願 및 登錄實態

〈特許局統計〉

年 度	發 明		實 用 新 案		意 匠		商 標		(計)	
	出 願	登 錄	出 願	登 錄	出 願	登 錄	出 願	登 錄	出 願	登 錄
1966	1,060	255	3,252	600	1,338	727	2,752	2,145	8,402	3,727
1967	1,177	428	3,594	819	1,919	979	3,228	2,166	9,918	4,391

化하여 生産되는 率은 2~3% 程度에 놓여 있다.

그같은 原因點을 分析해보면 特許를 登錄한後에 生産與件을 갖추지 못하는데서 經濟面에 何等の 方案을 찾지 못하고 허덕이다가 結局은 3年後의 登錄制를 完納 못하고서 取消되는 形便에 있다.

品質改善을 爲한 技術的 努力에서 特許는 獲得(登錄率 30%) 하였지만 이를 改善方向에는 利用되지 못하고 空文化하게 되는 實情은 特許行政이 一方的 形式處理에만 그치고 이를 助成, 獎勵, 保護, 指導의 方向에는 아무런 施策이나 獎勵方案도 없기 때문이다.

政府樹立後 國民創意를 積極助成케 하여 産業開發에 寄與하자고 主張하고 實施하여 오는 發明保護法案은 歲收增進이란 名目아래 一掃當하고 그나마 國民에 關心을 자아내던 産業的 技術改善의 象徴으로 삼던 法 第484號는 廢棄當하여 버리고 其後로는 이렇다 할 獎勵, 助成, 促進, 開發을 爲한 何等の 措處도 못하고 있다.

技術革新으로 産業近代化方向을 突進하고 있는 오늘의 時點에서 外國의 技術이나 導入하고, 保稅加工이나 하는 例로서 收入增進을 表計하는 일은 一時的 即興策이라기 보다는 恒久的 基盤을 度外하고 表面處理만을 하는 것으로 그 發展相에는 限度가 있다.

三. 特許戰爭時代에 即面하여서

現時局에서 民族의 發展과 成長에는 첫째로 經濟安定 産業革新이 基本要素가 됨은 더 말할 바도 없이 分명한것이고 또 産業의 進歩向上은 技術의 嶄新과 生産의 高度能率化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技術의 高度化는 特許增進의 努力

에서 解決되는 것으로 至今 外國의 業體나 生産을 하는 會社에서는 一個 中小業體로서 年間 數十件에서 數百件的 特許를 獲得하고 다시 國際的 工業所有權을 獲得하고 있는 事實로서 特許戰爭은 오늘 이 時代의 流行語가 되고 있다. 原子時代 宇宙開拓時代 核武器時代 電子時代等の 表現이나 術語가 오늘의 流行語로 누구나 常識化되고 있는것 같이 特許開發로 技術革新하고 生産高度化를 부르짖는 이 時限에서 「特許와 戰爭」이란 新用語가 普偏化되어 가고 있다. 産業, 文化, 政治, 國防, 道義等 모든것을 外援, 外勢에만 依存하여 오는 우리 頭腦는 自力建設이란 世紀的 革新을 이루고 自立建設로 國民經濟를 增進하여 一人當 GNP 150弗線을 上廻하고 輸出目標 10億弗線을 上廻하는 오늘의 成果는 實로 自立經濟의 確平한 證左을 자랑하는 一面 우리는 여기 새로운 國民의 覺悟와 舉族의 努力을 기우려서 前述한 바의 特許戰爭에 過去의 銃劍보다 더 무서운 經濟戰에 아이디어 技術戰에 어찌 臨할것인가. 韓日關係會談에서 強力히 論議되어온 여러 議題中에도 그들은 工業所有權協定問題를 더욱 深刻하게 내걸고 있음을 볼때에 여기 當局者는 勿論 業界, 學界와 生産人, 技術人 等은 認識을 더욱 새로이 하여야 할 것이다.

四. 特許助成에 政策的 支援 있어야 한다

生産第一主義, 經濟至上主義, 建設本位를 우리 民族의 標語로 하고 國土統一을 民族의 念願으로 하는 오늘 우리는 特許 技術, 아이디어 開發에 依한 強力한 助成策이 切實히 要望된다. (P. 34으로 계속)